

# 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3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## 목 차

1. 진화하는 수산 분야의 AI .....3
2. 쾅치, 몇 년 안에 남쿠릴로 회유 .....4
3. 2025년 러시아 극동 대계의 범위, 최대인가? .....5

□ 덴츠 등의 기업이 콩치잡이나 참치 감정으로 개발함.

- 인공지능(AI) 기술의 급속한 진보가 어업이나 물고기 유통에서도 활용되고 있음.
- 주로, 딥러닝이 이용되어 정밀도와 기능향상에 힘쓰고 있음.
  - 콩치잡이에서는 어장의 발생 해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음.
  - 어업 정보 서비스 센터가 해수온이나 과거의 어획 실적으로 AI에 의해 어장을 판정함.
- 또한, 참치의 감정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어, 덴츠 등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<TUNASCOPE>가 이용되고 있음.
  - 본 앱은 참치의 체질을 평가해 회전초밥 체인 및 슈퍼마켓에서 이용 중임.

\* 덴츠(電通): 일본의 광고회사 기업

- 향후, 기능을 향상해 국내외 참치 산지에서 세계 공통의 품질 기준 마련에 공헌할 예정임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1)</sup>

1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1019> ('24년 03월 29일 검색)

□ 러시아 연구소는 꽁치가 몇 년 안에 남쿠릴로 회유할 것으로 예측함.

- 최근 꽁치잡이의 흥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, 러시아의 해양 어업연구소 브니로가 수년 이내에 남쿠릴 해역으로 자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중장기예상을 발표함.
- 꽁치의 회유는 일본과 쿠릴열도의 먼 동쪽에서 시작되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쿠릴열도 북부로부터 베링해 남서부에 집중했으나, 2023년은 서부까지 분포가 확대되었음.
- 이 상황에서, 브니로는 남쿠릴에서 자원 형성이 전망된다고 발표한 것임.
- 외양(外洋)으로의 어군 형성 때문에 러시아의 꽁치잡이는 최근 사실상의 조업 정지에 물리고 있음.

※ 출처: 미나토 신문<sup>2)</sup>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0870> ('24년 03월 29일 검색)

□ 2025년 러시아 극동 대게의 총허용어획량(TAC)이 증가.

- 특히 오피리오(Opilio)종 대게의 TAC가 전년대비 8% 증가한 3만3,214톤으로 2013년 이후 최다가 될 전망이다.
  - 극동의 오피리오종 어장은 북 오토츠크나 연해 지방, 서베링에서 증가했고, 그 외의 어장은 전년과 동량으로 여겨짐.
- 왕게어장은 서쪽 캄차카에서 증가했지만, 캄차카의 크릴은 감소함.
  - \* 캄차카: 동태평양과 서쪽의 오토츠크해 사이에 있는 반도.
- 바이르디(Bairdi)종인 큰 대게의 TAC도 16% 증가해, 5,284톤이 되어, 2013년 이후 최다임.
- 그 밖에도, 참게, 꽃게, 털게, 가시 대게, 홍게의 증가가 예상됨.
- 극동과 바렌츠해의 합계 TAC는 4% 증가해서, 10만8,843톤으로, 역시 2013년 이후 최다가 될 전망이다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3)</sup>

3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1473> ('24년 03월 29일 검색)